



전국적으로 발생한 구제역으로 수백만 마리의 가축이 살처분됐다. '재앙' 처럼 찾아온 구제역은 창조질서를 무너뜨린 인간의 탐욕에 경고하고 있다. <사진=CBS노컷뉴스 제공>

하나님의 경고 '구제역'

인간의 '탐욕' 이 창조질서를 무너뜨리다

온 우주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목적과 사명에 따라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성경은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창 1:31)고 평가한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창 1:28)는 명령으로 '창조질서' 보존의 책임을 부여하셨다. 그러므로 인류에게는 단순한 환경보존을 넘어 온 우주적인 '창조질서'를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피해능가는 물론 온 국민에게 큰 상실감을 준 이번 구제역 사태는 단순히 축산농가의 경제적·심리적 손실 혹은 정부나 지자체의 방역문제가 아닌 하나님의 경고로 이해해야 한다. 최근 대두되는 살처분에 의한 지하수 오염 등의 환경오염 실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명령을 도외시한 애굽의 백성들에게 가축이 떼죽음을 당하는 저주와 그 땅의 물이 피로 변하는 저주가 임했던 출애굽기 재앙의 모습이 겹쳐져 떠오르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이다. 비록 지금까지 인간 전염사례가 없

고는 하나, 백신접종 가축마저 속수무책으로 감염시키는 구제역 바이러스 변종이 출현하여 사람에게 퍼진다면 이는 애굽 장자들이 모두 죽었던 마지막 저주를 능가하는 온 인류의 대재앙이 아닐 수 없다. 그 어느 누구도 이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을 장담할 수 없는 것 또한 분명하다.

우리는 구제역 사태를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 이상의 심각성으로 인식해야 한다. 이번 구제역 사태는 인간성 파괴와 자연에 대한 착취를 자행하며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질서'를 무너뜨린 인간의 '탐욕'이 그 근본적인 원인이기 때문이다.



구제역 확산방지 기도회

전국적인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한국교회 2만 여 성도들과 교계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 뜨겁게 기도했다. 한국교회희망봉사단은 1월 9일(주일) 저녁에 명일동 소재 명성교회에서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한 특별기도회>를 개최했다.

손인웅 목사(한교봉 법인이사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예배는 김삼환(한교봉 대표회장) 목사의 개회사와 이광선 목사의 격려사로 시작했다. 김삼환 목사는 "이번 구제역 확산 사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기 전 가축을 먼저 치시는 하나님의 경고로 이해해야 한다"며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의 모두가 스스로의 잘못과 죄악을 인정하고 회개하면, 이번 기도회가 분기점이 되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 말했다. 또 이광선 목사는 "전염병은 국가적 역량을 기울여 반드시 막아야 하지만 그 전에 확산에 찬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며 "전염병이 유행할 때 스스로를 겸비하고 회개하면 그 죄를 사하시고 그 땅의 치료를 약속하신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말했다. <2면에 이어서>

“구제역은 하나님의 경고...교회가 회개해야”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한 특별기도회, 2만여 명 모여 합심기도

〈1면에 이어〉 정정섭 장로(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회장)의 대표기도와 박홍자 장로(한교봉 부회계)의 성경봉독으로 이정의 목사(CBS 이사장)가 '지금엔 기도할 때'(누가복음 21:10-11)를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정의牧사는 “사람은 천년을 계획하되 내일 종말이 날이 오는 것처럼 살아야 한다”고 전제하고 “이번 구제역 사태는 사회타락에 대해 교회가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사회적 아픔에 대한 예언자적 사명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경고”라며 “한국교회가 뜨거운 열정과 기도하는 영성을 회복하여 영적 잠에서

깨어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 말했다.

주의석 부장(국립수의과학검역원 방제총괄)의 현황보고에 이어 정치권을 대표해 황우여 의원(한나라당) 김영진 의원(민주당)이 정치권의 대응방안을 설명했다.

황우여 의원은 “지난해 12월 국회 농수산식품위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의결한 후 오는 1월 13일 본회의에서 이를 우선 통과하기로 여야 합의했다”며 “6개월 이내 구제역 재발시 우리나라는 축산물 청정국가에서 제외되어 수출에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신속한 사태진정

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영진 의원은 “정치인들이 하나님 앞에, 역사 앞에, 국민 앞에 바로서진 못한 결과라고 인식한다”며 “농가부채와 농촌 교육여건의 미비 그리고 문화와 의료복지의 소외 등으로 1980년대 1천만 명에서 현재 320만 명으로 줄어들 만큼 열악한 농촌의 현실과 농민의 아픔을 한국교회가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이어 박만희 사령관(구세군) 김삼봉 목사(예장합동 총회장) 노문길 목사(예장백석 총회장)가 각각 ‘구제역이 속히 진정

되어 더이상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교회가 소외된 이웃과 약자의 희망이 되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각각 특별기도를 인도했고, 고명진 목사(한교봉 사업단장)가 합심기도를 인도했다.

김운태 목사(한기총 총무)는 구제역 피해 축산농민의 아픔과 방역종사자의 수고를 위로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낭독했으며, 추연호 목사(은파교회) 봉헌기도 후 최성규 목사(한기총 명예회장, NCKK 전 회장)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한교봉은 이후 정부와 지자체 및 방역당국과의 긴밀한 협력 가운데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한 한국교회의 역할분담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파 속 노숙인 향한 ‘이웃사랑’

‘2010 거리의 성탄잔치’ 전국 17개 지역 1만 노숙인과 함께

거센 추위 속에서도 소외된 노숙인들을 향한 한국교회 이웃사랑의 열기는 한층 더 따뜻했다.

한국교회희망봉사단은 성탄절 전날인 12월 24일(금)에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전주 수원 원주 등 전국 17개 지역에서 노숙인과 쪽방촌 거주자 등 소외된 이웃 1만 명과 함께 <노숙인과 함께하는 한국교회 2010 거리의 성탄잔치>를 개최했다.

구세군대한본영, 대한성공회,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와 공동주최하고 각 지역별 노숙인복지기관 주관 및 문화체육관광부와 각 지역별 지자체의 후원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참석자들에게 따뜻한 점심식사 제공과 더불어 내복, 양말, 장갑, 목도리, 속옷 등으로 구성된 방한용품 꾸러미를 선물했다.

매서운 한파로 수원역 대신 수원중앙침례교회로 긴급히 장소가 변경된 메인행사는 제1부 성탄축하공연에 이어 제2부 감사예배를 고명진 목사(사업단장)의 사회로 드렸다. 김삼환 목사의 개회사에 이어 허에스터 목사(양자선교회)의 기도와 이수근 사관(구세군 사회복지부장)과 홍영선 신부(성공회 남부교무부 총사제)의 성경봉독으로 한태수 목사(상임단장)가 ‘최고로 기쁜 선물’(사 61:1-3, 눅 2:8-14)을 제목으로 설교했다.

격려사에서 김정서 목사(예장통합 총회장)는 “성탄은 하나님의 공평하고 편견 없는 사랑이 이 땅에 나타난 날”이라며

“우리 모두 믿음으로 그 사랑에 응답하자”고 말했다. 축사에 나선 김진표 의원은 “이웃사랑의 실천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나타나야 의미가 있다”며 “우리의 가까운 이웃인 노숙형제들을 위해 따뜻하고 정성스러운 음식과 선물을 준비했으니 기쁘게 즐겨달라”고 말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유연채 정무부지사가 대독한 축사를 통해 “서해안 원유유출사고때부터 보여준 한국교회희망봉사단의 나눔과 헌신과 실천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성탄행사를 통해서도 노숙인들에게 드리워진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기적이 나타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 조창희 총무실장은 “정부가 미처 다 보듬지 못하는 소외 계층을 한국교회가 감당하고 있다”며 “어



보여준 이들이 바로 우리의 희망이며 한국교회의 희망”이라 말했다.

소강석 목사(사업단장)의 한교봉 사업 소개 후 김대술 신부(수원다시서기지원센터)와 함께 등단한 노숙인 출신 권일혁 선생(성프란시스인문대학)은 “13년간 노숙 생활을 통해 인생의 밑바닥에 있던 나를 살린 것은 인문학 교육이었다”며 “서울대에서 죽은 인문학이 서울역에서 살아났다는 말이 상징하듯 이제는 노숙인들을 시혜의 대상으로만이 아닌 인격으로 대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한 후 “식사와 선물도 고맙지만 근본적으로 노숙인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전환과 자활지원 그리고 이를 위한 국가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재일 목사(기장 중경총회장)의 축도 후 성도들은 정충일 목사(경기도노숙인복지시설연합회)의 인도에 따라 노숙인들에게 방한용품 선물과 점심식사 및 이미용·의료 서비스를 제공했다.

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삶의 희망인데 기독교가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찬양을 드린 ‘광야의섬터 노숙인합창단’을 이끄는 백정규 목사(수원광야의119섬터)는 소개를 통해 “비록 이들은 노숙인 신분이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노력하여 공무원시험과 검정고시 등을 패스하고 스스로 노숙인들을 위한 배식봉사에 참여하고 있다”며 “한국교회의 사역을 통해 이처럼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서해안 원유유출사고 3주기 맞아 세미나 열려

피해주민에 대한 사과·대책마련 촉구

서해안 원유유출사고 3주기를 맞아 한국교회가 정부의 책임있는 대책마련 및 피해주민에 대한 사고 당사자의 양심적 보상을 촉구하고, 생태적 회심과 창조질서보존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을 다짐했다.

한국교회희망봉사단은 12월 8일(수) 감리교신학대학 웨슬레체플 제1세미나실에서 <서해안 원유유출 사고 3주년 세미나>를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주관으로 개최했다.

제1부 여는예배에서 손인웅 목사(법인 이사장)는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라' (겔 47:6-12)를 제목으로 한 설교에서 "파괴된 자연환경은 하나님께서 자연에 부여하신 재생 능력을 인지하는 가운데 자연을 지켜야 할 우리들의 신실한 청지기적 노력이 결합될 때 회복될 것"이라 말했다.

김종생 목사(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2부 세미나는 이승화 연구원(생태지평 연구소)이 '삼성중공업 해상크레인-허베이 스피리트호 유조선 충돌 유류오염지역

모니터링과 환경변화'를, 이광희 목사(태안 의향교회·당시 현장상황실장)가 '태안 참사 후 3년-태안 주민들의 삶과 현실'을, 성백걸 교수(백석대·서해안살리기 생태백서 저자)가 '서해안 원유유출사건 이후 한국교회의 생태신학적 전망'을, 양재성 목사(기독교환경운동연대 사무총장)가 '서해안 원유유출사태를 통해서 본 한국교회의 환경선교'를 제목으로 각각 발표했다.

이승화 연구원은 "서해안 원유유출 사고는 그 이전 10년간 발생했던 3,915건의 해양오염사고에서 유출된 기름 10,234kl 보다 훨씬 많은 12,547kl가 유출된 최악의 참사로 충청도와 전라도 연안 1,052km와 서해연안 101개 도서지역이 오염된 환경재앙이었다"며 "현재 눈에 보이는 기름은 많이 사라졌으나, 환경적·심리적으로 해당 지역 생태계와 지역사회의 회복은 길게 20년 이상 소요될 수도 있다"며 정부와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이광희牧사는 "제대로 된 보상을 촉구



서해안 원유유출 3주년을 맞아 지난 12월 감신대 웨슬레체플에서 세미나를 열었다.

하며 자살한 지역주민이 4명에 이르고 있음에도 대기업과 정부의 보상지연과 책임 회피로 보상은 물론 주민들의 생계와 건강 문제 등은 하나도 해결된 것이 없다"며 "정부는 피해주민들의 생계를 영위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양재성 목사는 "우리나라의 생태의식은 2007년 조사에 의하면 146개국 중 122위로 최하위 수준"이라 전제하고 "그러나 자원봉사인력 130만명 중 기독교인이 80만명에 달했고, 전체 봉사인력에게 공급된

밥차봉사의 2/3 이상을 기독교기관이 담당하는 등 한국교회는 서해안 살리기에 올인하면서 대한민국의 생태의식을 한단계 발전시키는데 큰 역할을 담당했다"고 평가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마련과 사고 당사자의 양심적 보상을 촉구하며, 창조질서보존운동 지속적 전개와 창조세계와의 공생을 다짐하는 '서해안 원유유출사고 3주년 한국교회 선언문-다시 서해안을 기억합시다'를 발표했다.

● '서해안 원유유출사고 3주년' 한국교회 선언문

지난 2007년 12월 7일 오전 7시, 충남 태안군 소원면 만리포 북서쪽 앞바다에서 삼성중공업 해상크레인 예인선단과 홍콩 선적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HEBEI SPIRIT)호가 충돌하여 원유유출사고가 일어났지 어느덧 3년이 되었습니다. 국내 사상 최악의 원유유출사고로 기록된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끔찍한 이 환경사고는, 대표적인 청정해역인 태안 앞바다를 순식간에 '검은 지옥'으로 뒤바꿔 놓았고, 바다에 기대어 살아가는 서해안 주민들의 삶을 파헤쳐 하고 마을 공동체를 파괴하는 끔찍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서해안 기름유출사고 3주년을 맞은 지금, 서해안은 아직도 아물지 않은 아픔으로 깊은 신음과 탄식에 빠져 있습니다. 사고 직후 전국에서 모여든 130만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생계의 터전을 잃지 않으려는 주민들의 처절한 사투 덕분에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지만, 현재 신두리, 태배, 소근리 등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기름덩어리가 발견되고 패류와 갑각류 개체 수가 회복되지 않는 등 심각한 오염 후유증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시 서해안을 기억합시다”

자연 생태계의 파괴는 해산물 감소로 이어져 주민들의 생활고를 가중시켰지만 누구에게도 하소연 할 길이 없어, 바다를 삶의 텃밭으로 여기며 살아온 주민들의 검은 눈물은 여전히 흐르고 있습니다. 태안환경보건센터 조사에 따르면 장기간 방제작업에 참여한 지역주민들에게 세포손상과 호르몬 계통의 변화로 인해 천식 등 호흡기 질환과 피부염과 같은 알레르기성 환자가 눈에 띄게 늘었고, 지역주민들의 스테로이드 호르몬의 불균형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암 발생에 대한 불안감도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눈앞에 펼쳐진 거대한 생태적 재앙으로 인한 충격은 아직도 주민들의 마음에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기고 말았습니다. 특히 3년이 넘도록 큰 진척이 없는 피해배상은 주민들의 마음을 더욱 멍들게 하고 있습니다. 법정을 오가며 책임의 소재를 서로 미루는 동안 3명의 주민이 생활고와 처지를 비관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올해 2월

에는 태안기름유출사고 대책위원장으로 일하던 성정대 위원장이 자살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고당시 저마다 충분한 보상과 해결을 공언했던 정부와 관계자들의 약속은 전혀 지켜지지 않았고, 오히려 보상금액과 기준에 따른 시비로 인해 주민들간의 신뢰가 깨어져 지역 사회에 불신만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사고 당시 한국교회가 보여준 관심은 뜨거웠습니다. 죽음의 강도를 만나 신음하고 있는 자연생태계와 서해안 주민들의 선한 이웃이 되기 위해, 교단과 교파를 초월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생명의 하나님을 증거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과 많은 현안문제로 인해 '서해안'은 모두의 기억 속에 잊혀져갔고, 국민들의 관심과 사랑도 점차 식어갔습니다. 이제 다시 '서해안'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앞장 서 여전히 신음하고 있는 자연생태계와 검은 눈물을 쏟고 있는 그들의 아픔을 말해야 합니다.

'이웃의 짐을 서로 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으로 서해안 주민들 곁에서 위로하고 울고, 지원과 사후 대책 등을 마련해야 합니다. 자연생태계의 상처와 주민들의 정신적 상처를 어루만지고, 소망을 불어넣는 일이야말로 한국교회가 지속적으로 해야 할 책임과 사명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요구와 다짐

1. 우리는 서해안 사태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나서서 책임 있게 대책을 마련해주길 강력히 요구합니다.
2. 우리는 서해안 사태 당사자들이 책임을 통감하고 사과함은 물론, 양심적으로 보상하고 아울러 생태계 회복에 깊이 고민하며,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줄 것을 요구합니다.
3. 우리는 생태적 회심을 경험한 한국교회가 창조질서보존운동에 지속적으로 나설 것을 다짐합니다.
4. 우리는 창조세계와의 공생관계를 위해 단순하고 소박한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합니다.

2010년 12월 8일
한국교회희망봉사단 ·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논단

동물보호 문제를 다시 생각해 본다

노영상 /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와 문화 교수

구제역, 창조질서 훼손을 경고하다

최근 국내의 여러 지역에서 수많은 소들이 구제역에 의해 쓰러진바 있다. 몇 해 전엔 광우병에 의해 많은 소들이 희생당하였는데, 이제는 구제역이 기승을 부린다. 닭과 오리에 대한 조류독감의 피해도 만만치 않다. 수많은 소와 돼지와 닭과 오리들이 땅에 묻혀 살처분 되었으며, 조류독감의 인간에 대한 전염도 염려해야 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인간들의 소와 돼지와 닭들에 대한 꾸준한 착취가 그들의 면역성을 낮추었을지도 모른다. 이러한 동물들에 전염병이 확산되는 이유가 다른 요인들로 설명하기도 하지만, 조류독감 등이 야생조류에는 치명적인 질병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볼 때, 인간의 가축들에 대한 착취적 사육 때문이라는 견해가 올바를 것이라 사료된다. 오늘의 동물전염병들은 공장식 영농하에서 좁은 공간에서 사육되어 거의 운동을 하지 못하는 동물들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보다 값싼 고기를 팔기 위해서라면, 사육 당하는 동물들에 대한 존중 따위는 사치일 뿐이라는 생각이 만연되어 있다. 가축들이 적절한 시기에 도살되어 부드러운 육질을 갖춘 하나의 상품이 되기까지, 집단영농 하의 동물들은 기나긴 고통의 시간을 감내할 수밖에 없다. 팔기 위해, 돈을 벌기 위해, 자본주의에 대한 인간의 끝없는 욕심 때문에 이 수많은 동물들을 학대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그리고 어찌면, 지금 확산되고 있는 구제역이나 광우병, 조류독감 역시 이 광기에 가까운 집단사육과 무자비한 도살에 의해 시작된 재앙의 전초일지도 모른다. 이제 짐승들도 이러한 환경을 이겨내는 데에 한계에 이른 것 같다. 동물에 대한 사랑이 필요한 때다. 동물의 생명이 하나님 앞에서 잘 보호될 때, 인간의 생명도 함께 복을 누릴 수 있으리라 여긴다. 동물의 복지를 나름대로 배려함이 없이, 동물들을 무한히 사용할 수 있다는 생각은 올바르지 않다. 동물을 우리 마음대로 사용하며 착취하고자 하는 것이, 인류에게 심각한 위기를 야기할 수도 있다.

많은 고전적 신학자들은 동물이 단순히 인간에게 종속되는 존재로 인식하여, 그들이 인간을 봉사하는 이외에 다른 목적을 갖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이러한 견해를 대표하는 신학자로는 토마스 아퀴나

스를 들 수 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에 의거, 자연적 질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는 동물이 인간의 사용을 위해 의도되어졌음을 지시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그들을 죽이든 어떠한 방법으로 사용하든 틀린 것이 아니라고 토마스는 언급한다. 그러나 호주 출신으로 현재는 프린스턴대학교에 있는 철학자 싱어(Peter Singer)는 이러한 논의들에 반대하여 평등의 개념을 확장할 것을 주장하였다. 동물도 하나의 평등한 권리를 갖고 있음을 말하면서, 그는 동물의 해방을 제안한다. 그는 동물에 대한 인간의 의무와 책임에 대한 주제를 그의 책 『동물 해방』에서 심도 깊게 검토하였다. 동물이 인간과 같은 의식이나 이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므로, 함부로 다룰 수 있다는 주장을 그는 비판한다. 그러한 논리라면, 이성의 능력이나 의식의 수준이 동물보다 낮은 사람들은 동물만큼도 취급될 수 없어야 할 것이다.

1. 구약에 나타난 동물에 대한 견해

구약성경은 동물을 신화화하거나, 주술화하거나, 그리고 신성시하지 않는다. 성경은 그 동물을 하나님의 창조계획에 포함시키고 있다. 창세기 1장 29절은 채식주의적 입장을 그리고 있다.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 본문은 식물만이 우리의 음식임을 강조한다. 또한 창세기 6:12, 13, 9:11, 17 등의 말씀

들은 인간과 동물이 모두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연대성을 갖고 있음을 언급한다. 인간과 동물이 혈육을 가진 자라는 포괄적인 단어로 표현되고 있다. 그들에 대한 심판과 그들에 대한 구원이 위의 구절들에서 함께 서술되고 있다. 창세기 6장은 노아의 방주가 사람뿐 아니라, 짐승들에게도 구원의 방주가 되었음을 표현한다.

하나님은 출애굽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식물성인 음식으로서의 만나로 만족할 것을 바라셨으나, 백성들은 고기 먹기를 갈망하였고, 이에 하나님은 하는 수 없이 이스라엘에게 메추라기를 보내시게 된다(신명기 12:20).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상적인 동산에서는 음식을 위해 동물을 살해하지 않았는바, 이러한 훈련된 모습을 우리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모습에서 볼 수 있다(다니엘 1:12).

하지만 노아 홍수 후 이러한 채식주의적 주장이 후퇴되고 있다. “무릇 산 동물은 너희 식물이 될지라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 채 먹지 말 것이니라”(창세기 9:3-4). 노아 홍수 후 하나님은 인간에게 고기를 먹을 것을 허락하신다. 인간의 타락 후 땅은 더욱 오염되었으며, 이에 더 심한 노동이 필요하였고, 이를 위해 더 농밀한 음식이 요청되었던 것이다.

성결법전 중의 레위기 11-15장에 나타나는 정하고 부정한 음식에 대한 규정 또한 생명에 대한 경외의 마음을 강조한다. 돼지고기와 비늘 없는 물고기를 먹지 말하

고 한 것은, 그러한 고기들은 맛있는 고기로서 지나치게 많은 음식을 먹게 되는 것을 경계하는 규정이다. 맹수들과 육식동물들도 먹지 말라고 하였는데, 그러한 고기들을 먹으면 사람들이 맹수같이 사나와질 것을 경계한 것이다. 이러한 레위기의 말씀은 노아 홍수 이전의 채식주의적인 삶과 홍수 후의 고기 먹는 것에 대한 허용 사이의 중간적인 입장으로 인간의 식욕을 억제시키고,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물들과 평화스럽게 사는 길을 제시하고 있다.

모세오경은 인간과 동물 사이의 상호 의존됨과 동일한 이해관계에 놓여 있음을 강조한다. 출애굽기의 십계명은 안식일의 규례를 말하며, 안식일에 사람만이 쉬는 날이 아니라, 동물도 안식하는 날임을 강조한다(출애굽기 20:10). 또한 출애굽기 23:10-11의 말씀은 안식년을 설명하면서, 칠 년이 되는 해에는 밭을 묵혀 두어서, 그 밭의 소산을 가난한 사람과 들짐승들이 먹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성경의 많은 말씀들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짐승들도 함께 고통을 당하고 있음을 언급한다(호세아 4:1-3, 스바냐 1:2-3, 요엘 1:18). 신명기 22:10 말씀은 소와 나귀가 함께 멩에를 매도록 하지 말 것을 말한다. 그 두 짐승은 서로 힘의 세기가 다른 짐승으로 같이 멩에를 매게 될 경우, 힘없는 동물이 상하게 되기 때문이다. 레위기 22:28은 어미 소를 새끼와 함께 도살하지 말 것을 언급한다. 같은 장의 6-7절 말씀은 어미 새를 그 알과 같이 취하지 말라고 하였다.



“
 바울은 고기를 먹고 안 먹
 고의 문제가 공동체를 깨뜨
 릴 수 있다고 경고한다.”

2. 신약에 나타난 동물에 대한 견해

성어는 마태복음 8:31-32의 사람에게서 쫓아낸 귀신을 돼지 떼에 들어가게 하여 돼지 떼를 바다에 몰살시킨 사건과, 마태복음 21:19의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여 마르게 한 사건을 동식물에 무관심한 내용으로 비판하고 있다. 과연 신약성경은 구약에 비해 동식물에 적은 배려를 하고 있는 것일까?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언급하는 바의 영적인 의미를 되새겨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신약성경에서 사도행전 10:12-13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구약이 말하는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는 명령이 나타난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마태복음 15:11은 말한다. 누가복음 12:6과 마태 10:29의 말씀엔 참새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그리고 있으며, 누가복음 12:24과 마태복음 6:26은 새들을 먹이시는 하나님의 배려를 묘사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사역 전에 광야로 나가서 들짐승과 함께 계시며 창조의 본래적 모습을 회복하셨음을 보이고 있다(마가복음 1:12-13).

바울은 인간을 포함한 전 창조물의 구원을 말하며, 하나님의 동물들에 대한 배려를 강조한다(로마서 8:19-22, 골로새서 1:19-20). 사도 바울은 기독교인의 구원을 위해 율법을 준수할 필요가 없음을 말하면서, 율법 중의 음식 규정에 대해 무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로마서 14:2-3의 말씀 등에서, 바울은 고기를 먹고 안 먹는 문제가 공동체의 결속을 깨뜨리게 할 수 있음을 경계하고 있다. 고기를 먹고 안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함을 바울은 강조한다(고전 8:13). 이와 같이 신약성경에선 율법보다는 복음을 강조한 나머지, 음식 규정에 따른 동물에 대한 배려의 차원이 약화되고 있음이 나타난다.

3. 신구약 성경에 나타난 동물에 대한 신학적인 입장을 재구성함

구약성경은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한 짐승의 희생제사를 명하고 있는바, 이러한 말씀은 일면 더 높은 가치를 지닌 인간을 위한 더 낮은 가치의 짐승의 희생을 인정하는 것 같다. 그러나 이 같은 해석에 대한 신학적인 반론이 마스컬(Eric Mascall) 및 마

슈어(Eugene Masure)와 여키즈(R. K. Yerkes) 등에 의해 제기되었다. 이들은 희생제사를 동물들의 인간을 위한 희생에 앞서, 그것들이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의미로 이해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희생을 통해 동물이 파괴되는 것이 아니다. 파괴되어진다면 하나님께 봉헌될 것도 없게 된다. 그러한 희생의 봉헌을 통해 동물은 일개 그들의 보이는 생명에서 해방되어 하나님께 열납 되도록 변혁되는 것이다. 희생의 제사는 동물의 생명이 인간에게 속한 것이 아니며, 하나님에게 속한 것임을 드러낸다. 그것은 동물의 생명이 하나님께 속한 것과 같이, 인간의 생명도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나타내는 의식이다. 이에 이러한 희생제사를 통해 동물의 생명이 파괴되는 것이 아니며, 동물과 인간의 생명이 더욱 하나님 앞에서 더 온전한 형태로 변화되는 것이다.

창세기 8:20-22은 이러한 희생제사에 의한 인간과 동물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의 생명보장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노아의 희생제사는 동물의 생명파괴를 통한 인간 생명의 회복을 의미하는 제사가 아니었으며, 그것에 의해 모든 생명이 하나님 앞에서 그 가치를 보장받는 의식이었다. 이러한 동물의 희생제사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타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은 동물을 희생하는 제사를 대치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 동물 희생 제사가 종식된다. 십자가는 인간에게 생명을 주는 구원이었을 뿐만 아니라, 구약제사에 의해 희생되어 왔던 동물들의 고통을 마치게 한 사건이기도 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성육신 하셔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희생하십시오, 인간과 동물의 생명이 약하고 유한한 것임을 나타내셨다. 또한 십자가는 피의 희생을 의미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의 나타남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한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 구속되는 것이며,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에 구약의 동물 제사를 죽음과 파괴라는 부정적 이미지만으로 해석하기 보다는, 그 속에 있는 생명과 은총이라는 보다 적극적인 면에서의 해석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 본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자신의 생명을 그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봉헌하였으며, 하나님은 그 생명을 열납하시고 또한 그것을 변혁시키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낮추사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리스도가 자기를 낮추셨듯, 우리 인간도 동물을 포함한 자연만물에 대해 우리의 힘을 무한히 행사하려해서는 안 될 것이다.

희생제사의 또 다른 부수적인 목적이



있었다. 고대 이스라엘 시대에는 먹는 고기가 모두 희생제사를 거친 것은 아니었지만, 희생제사의 동물들이 인간을 위해 음식으로 사용된 것을 성경 말씀으로 알 수 있다. 곧 구약의 희생제사는 고기 먹는 것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고전 8장에는 우상에 바쳐진 고기를 먹는 문제를 특히 언급하는 바, 고대에 있어서는 고기가 음식으로 사용되기 전, 하나의 종교적 의

“
 희생제사를 통해 동물과 인
 간의 생명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형태로 변화된다.”

식을 거쳤음을 그 본문은 지적한다. 고대의 이스라엘인들은 제사를 통해, 짐승의 고기를 거룩하게 한 후, 그것을 음식으로 사용하였던 것 같아 보인다. 그것은 동물 제사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인 'sacrifice'가 거룩하게 한다는 뜻을 갖고 있음을 봐서도 알 수 있다. 유대주의에 있어 동물을 죽이는 것은 성스러운 행동이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과 위엄 앞에서만 행하여졌다. 오늘에 있어서는, 짐승의 고기가 도살 자들에 의해 공급되지만, 이전 고대 세계에 있어서는 사제 계급이 고기를 공급하는 일에 관여하였던 것 같다. 물론 구약의 제사는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총의 수단이다. 그러나 그 의식은 동시에 짐승의 고기를 먹기 전, 그 짐승의 생명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고, 그 고기를 하나님께 바친바 된 거룩한 것으로 변혁한다는 부수적인 의미도 내포하고 있었던 것이다. 70년 예루살렘의 제2성전이 파괴된

후, 많은 랍비들은 금육주의를 강조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먹지 않으면서 채식주의적인 경향을 보였었는데, 그것은 성전의 제사가 사라짐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성전파괴 후의 채식주의적 경향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무로 짐 지워지지 않았다. 그들의 생존 또한 중요하였기 때문이다.

고대의 사람들은 고기를 먼저 신에게 거룩한 생명으로 바치고, 하나님께 드리진 그 고기를 인간이 먹게 함으로, 동물의 생명의 고귀함과 그 동물을 고통이 없이 죽이는 방법을 강조하였으며, 또한 동물을 죽이는 자가 야수화되는 것을 방지한 것 같다. 이에 오늘의 우리도 음식으로 사용하기 위해 동물을 도살하면서, 좀 더 생명에 대한 외경의 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구약의 제사의식은 우리에게 동물을 사소한 인간의 유익을 위해 무작정 착취하거나 학대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친다. 동물의 생명이 하나님의 것인 바와 같이, 우리 인간의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며, 제사를 통해 동물의 생명이 하나님께 바쳐져 새로운 생명으로 화하게 되는 것과 같이,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께 열납될 때, 참 생명의 길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게 동물의 희생제사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생명을 우리에게 증거한다. 동물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모형으로, 제사의 희생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 우리 인간의 생명은 구원되는 것이다(히브리서 9:13-14).

* 이 글은 2011. 02. 17 열린 (구제역 피해농가의 목회적 돌봄을 위한 세미나) 자료집에 수록된 저자의 글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2011 설날사랑큰잔치

민족 최대의 명절 설날 연휴기간에 한국교회가 서울역 노숙인과 쪽방촌 거주자 등 따뜻한 사랑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했다.

한국교회희망봉사단은 2월 2일(수)부터 4일(금)까지 2박3일 설 연휴기간동안 서울역 광장 및 인근 급식시설에서 고향 친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없는 서울역 노숙인과 노인 및 쪽방촌 거주민 등 1천5백여 명에게 명절연휴 3일간 설떡국 및 특식제공과 더불어 목욕과 민속놀이, 의류제공 등의 서비스 부스를 운영하는 '2011 설날사랑큰잔치'를 개최했다.

한국교회희망봉사단과 노인노숙인사랑연합회 그리고 서울노숙인복지시설연합회가 공동주최하고 구세군브릿지센터 성공회다시서기상담보호센터 기독교긴급구호센터 해돋는마을 사랑의쌀나눔운동본부 브엘세마교회 나눔공동체가 공동주관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원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연인원 8천여 명의 경제적으로 소외된 이웃들이 참여했다.

특히 이번 행사 기간 동안 참석자들은 기존의 거리급식이 아니라 구세군브릿지센터 기독교긴급구호센터 채움터 해돋는마을 나눔공동체 등 서울역 인근의 실내급식처에서 식사제공을 받았다. 또 장갑, 털모자, 목도리 등 방한용품을 명절선물로 매일 한 차례씩 총 3회에 걸쳐 받았으며, 서울역 광장에는 한방차, 떡과일 등 먹거리, 장기·제기차기 등 전통놀이, 상담, 목욕, 의류 등을 제공하는 부스가 설치되어 3일 동안 서비스했다.

이번 설 잔치에는 거룩한빛광성교회(정성진) 종교교회(최이우) 은평성결교회(한태수) 명성교회(김삼환) 영락교회(이철신) 삼성제일교회(윤성원) 덕수교회(손인용) 새에덴교회(소강석) 영안교회(양병희) 사랑의교회(오정현) 성도 6백여 명이 배식봉사에 함께 참여했다. 특별히 서현교회(김경원 목사)는 노숙인들을 위한 중고의류 2천여 점을 의류부스에 기증했고, 참석자들이 직접 본인이 입을 옷을 고를 수 있도록 하여 호평을 받았다.

김삼환 목사는 "하나님을 섬기듯 주변의 소외된 이웃을 섬기라는 예수님의 말씀(마 25:40)을 실천하고자 한국교회가 마음을 모았다"며 "이번 잔치는 참여자들에게는 훈훈한 기쁨이, 봉사자들에게는 주님을 섬기는 성도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모습을 숙고하는 큰 계기가 되었을 줄로 믿는다"고 말했다.



연차대회에 초청된 용산참사 및 경찰희생자 유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한국교회 디아코니아 네트워크 구성 추진

엑스포 해단식 겸 연차대회 ... 8개 사업단 설립, 사업단장 임명

2010년 한국교회 섬김과 나눔 사역을 결산하며 2011년 한국교회 디아코니아 네트워크 구성을 모색하는 희망과 봉사의 잔치가 열렸다.

한국교회희망봉사단(한교봉)은 12월 2일(목) 그랜드 엠베서더호텔 2층 볼룸에서 <기독교사회복지엑스포 2010 해단식 및 한국교회희망봉사단 2010 연차대회>를 회원교회와 기관대표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졌다.

김경원 목사(상임단장·서현교회)의 사회로 진행된 1부 감사예배는 한태수 목사(상임단장·은평성결교회)의 기도와 박홍자 장로(부회계)의 성경봉독으로 이광선 목사(한기총 대표회장)가 '복음과 섬김' (눅 8:1-3)을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어 박만희 사령관(NCKK 부회장·구세군)과 노문길 목사(예장백석 총회장)의 축사 후 김정서 목사(예장통합 총회장)가 축도했다.

김양원 목사(엑스포 복지단체협력단장)의 사회로 진행된 2부 기독교사회복지엑스포 2010 해단식은 행사내용을 담은 영상 상영에 이어 장경준 목사(엑스포 집행위원장·한우리교회)가 행사 내용을 보고했으며, 김광한 장로(엑스포 감사)와 이창연 장로(엑스포 회계)가 각각 엑스포 재정에 대한 감사내용 및 재정내역 발표를 맡았다. 이어 엑스포 개최에 기여한 장경준 목사, 김양원 목사, 김동배 교수(엑스포 교수협력단장·연세대), 최성재 교수(엑스포 전시위원장·서울대), 유장춘 교수(엑스포 학술위원장·한동대)에게 각각 공로패를 전달했으며, 손인용 목사(엑스포 상임대회장·한교봉 법인이사장)의 조직위원회 해단선언이 있었다.

최이우 목사(상임단장·종교교회)의 사회로 진행된 3부 한국교회희망봉사단 연차대회는 김삼환 목사의 인사 후 김종생 목사(사무총장)가 아이티 지진참사 이재민 지원사업 등 2010년 한교봉 주요사업을 보고했다. 사업보고 중 용산참사 유가족 위로사업에 함께한 최현국 목사(유가족 상담치료)와 유가족 및 희생경찰 유가족, 디지털수화성경 제작 지원사업에 함께한 손원재 목사, 일

본군위안부피해자 지원사업에 함께한 윤미향 대표(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와 김복동·길원옥 할머니, 루게릭환자 지원사업에 함께한 김창명 회장(구피플) 구본홍 사장(CTS) 강성웅 교수(강남세브란스병원) 등이 루게릭환자 보호자를 대동해 사업별로 각각 등단했다. 최희범 목사(총무)가 디아코니아 네트워크사업, 복지사업, 구호사업, 기획사업 등으로 구성된 2011년 봉사단 사업계획을 발표한 후, 이철신 목사(상임단장·영락교회)가 새롭게 구성되는 8개 사업단의 조직 및 내년도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김삼환 목사는 고명진 목사(기침·수원중앙침례교회) 소강석 목사(예장합동·새에덴교회) 송기성 목사(기감·정동제일교회) 박철규 목사(예장백석·새마음교회) 윤성원(기성·삼성제일교회) 정성진 목사(예장통합·거룩한빛광성교회) 최길학 목사(기하성·여의도순복음광명교회)를 새롭게 구성될 사업단의 사업단장으로 임명했으며, 대표로 소강석 목사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소강석 목사는 8개 사업단의 2010년 마지막 연합사업으로 서울·부산·대구·대전·수원 등 전국 11개 도시 13개 지역에서 12월 24일(금) 진행되는 <2010 거리의 성탄절> 행사계획을 발표했다. 또 고명길 목사(울산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는 울산기독교사회복지회와 연합으로 추진하는 한교봉 울산지회 통합추진과정을 보고했으며, 서재일 목사(기장증경총회장)의 오찬기도로 행사를 마쳤다.

한국교회희망봉사단은 2011년에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디아코니아 네트워크 사업을 추진하여 회원교회를 30개 교회 단위로 묶는 8개 사업단(기획·구호·아동청소년지원·노인지원·장애인지원·가족여성지원·다문화지원·노숙인지원)을 구성하며 복지단체를 영역별로 묶는 협의체 및 각 교단 사회봉사부를 묶는 '한국교회사회봉사공동기획단(가칭)' 등의 결성과 지역별 지회 설립 및 강화 등을 추진한다.



아이티에서 온 편지 - 이인수 목사

교육, 아이티 재건의 새로운 장

아이티, 외세의 간섭과 식민통치를 겪었던 이 나라는 지원받는 일에는 역사도 길고 익숙합니다. 진정으로 이들을 돕는 일은 구호품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자력으로 일어나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게 하는 일이라는 것이 이곳을 위해 일해 본 사람들의 한결같은 생각입니다. 정확한 통계를 잡을 수 없는 것이 이 나라의 특징이기도 한데, 아이티는 50% 이상(때로는 70%)의 문맹률을 갖고 있습니다. 누구나 이 나라에 교육이 필요한 것을 알아 학교를 세우지만 비싼 물가를 감당치 못한 외국 NGO 들이 얼마간 운영하다 떠나 버려 문을 닫은 학교들을 거리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매년 7만 5천명의 고등학생을 배출하지만 적은 대학수와 등록금 문제로 입학하는 학생은 채 만 명이 못됩니다. 경상남북도를 합한 크기의 적은 국토에 그나마 놓고 있는 땅이 많으며, 실업율은 통계마다 다르지만 약 5-60% 정도입니다. 빈방, 빈 일손에 수입품의 1/3이 식품이니 어린세대부터 교육시켜 식품을 자급자족하고 수입을 줄여 나가는게 급선무입니다.

한국교회희망봉사단도 사람을 키우는 것에 중점을 두고, 평일에는 학교, 주일에 교회로 사용되는 건물 중 지진 피해를 입은 곳 70곳을 선정하여 보수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콜레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백성들을 위해서 대 한예수교장로회 합심 총회와 굿피플, 캐나다 한인 선교단체, 도미니카 교회 협의회와 연합으로 콜레라 클리닉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80%가 카톨릭, 16%개신교, 4%가 기타 종교이지만, 그와 함께 100%가 아프리카의 토속종교인 부두교 신자라는 말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생활 속 깊숙히 저변에 부두교가 확산되어 있습니다.

아이티는 전국민 약 천만 중 300만이 수도인 포트프랭스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중 약 60만 가량이 의식주를 해결치 못하여 지금도 텐트 속에서 배급으로 살고 있습니다. 도심에서조차 상수도 없는 지역이 대부분이지만 그나마 도시를 벗어나면 식수공급이 용이치 않아 콜레라 등 수인성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반면 빈부의 차이는 차



가 커서 상위 5%, 그 중에서도 7명이 나라 전체의 경제를 좌지우지 하고 있으며, 도심에는 집을 두, 세채 씩 가지고 있으면서 정작 본인은 미국에서 거주하는 사람들도 자주 접하게 됩니다. 그런 부류 중 목회자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보아 기독교가 생활 속에 깊이 뿌리 내리지 못했음을 짐작케 합니다.

올해는 본격적으로 기술학교설립을 진행 하려고 합니다. 사람을 키우는일, 나라의 미래를 이끌어 갈 젊은 리더들을 키우는 일은, 100여년 전 미지의 땅, 조선에 와서 우리 민족을 깨웠던 벽안의 선교사님들처럼 이 나라의 백년대계를 세우는 일입니다. 무더운 날씨와 열악한 환경, 하염없이 기다려야 하는 늦은 행정처리 등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이 이 땅을 회복 시키려는 주님의 마음

을 가진 우리를 막지 못하리라 믿습니다. 각 나라의 믿음의 형제들의 기도가 모아졌던 이곳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셔서, 국가를 회복하고 질서를 세워가며 주님이 통치하심을 만방에 증거하는 나라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먼 훗날 이 백성들의 기도 속에 당했던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회복시키시기 위한 주님의 은혜였으며, 그로 인해 이 땅이 회복되었음을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시간이 오리라 믿습니다.

※ 아이티 국민에게 들이닥쳤던 재난이 있을 후, 한국 교회 성도들의 헌금은 아이티의 구호 및 재건에 사용 되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희망봉사단을 포함한 한국 NGO나 교계에서는 단계적으로 긴급구호를 실시 한 후, 이 나라를 위해 필요한 중장기 프로그램 들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구제역 피해농가의 목회적 돌봄을 위한 워크숍

3월 중 농촌교회에 '피해상담 지침서' 무료보급

구제역으로 인해 300만 이상의 가축이 살처분되고, 매몰된 가축으로 인한 침출수 등 환경오염 우려가 새롭게 대두되는 가운데 피해축산농가에 대한 목회적 돌봄의 방법들을 모색하는 세미나와 워크숍이 열렸다.

한국교회희망봉사단은 2월 17일(목) 원주소재 치악산명성수양관에서 강원도 내 구제역 피해지역 목회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구제역 피해농가의 목회적 돌봄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한국기독교농촌목회자연대회의(회장 김정운 목사)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워크숍은 김정운 목사의 인도로 진행된 예배 후 노영상 박사(장신대)가 '신학적 관점에서 구제역'을, 최의현 박사(연세로렘정신과 원장)가 '정신의학적 관점에서의 구제역'을, 양재성 목사(기독교환경운동연대 사무총장)가 '생태적 관점에서의 구제

역'을, 박순웅 목사(동면감리교회)가 '목회적 관점에서의 구제역'을 주제로 발제했다.

노영상 박사는 '2011년 구제역 확산에 즈음하여 동물보호 문제를 다시 생각해 본다'를 제목으로 한 발제를 통해 "성경은 인간과 동물을 상호존중적이며 동일한 이해관계에 놓여있다고 이해하며, 그 대표적인 예가 사람 뿐 아니라 짐승들에게도 구원의 방주가 된 노아의 방주"라고 전제하고 "인간은 동물을 포함한 전 피조물들에 대해 절대적인 권리가 아니라 청지기적 관리인임을 자각해야 한다"며 공장식 영농(factory farming) 방식을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의현 박사는 '구제역 축산농가를 위한 심리적인 지지 매뉴얼'을 제목으로 한 발제에서 "구제역은 당장의 재앙이 눈앞의 현실로 보이는 여타 재난과는 달리, 구



제역 판정 이후의 뒷수습 과정에서 더 큰 심리적 타격을 받게 된다"고 말한 후 "일반적인 상실감을 넘어 일상생활이 유지되기 어려울 정도의 혼란이 있거나 자살의 위험이 있을 때는 주변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재성 박사는 "현재 하루 4만 명이 이상이 아사하는 가운데 지나친 육식문화로 인해 대량의 곡물이 가축사료로 사용되고 있다"며 "이번 구제역 사태는 정부의 초 등 대응 잘못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탐욕

적인 육식문화가 불러온 과잉축산에 의한 공장식 밀식사육의 일반화가 원인"이라 진단한 후,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는 삶의 방식을 모색하고 새로운 밥상문화의 전환과 축산방식의 과감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순웅 목사는 "적은 양의 축산을 좀 더 넓은 공간에서 좀 더 좋은 사료로 키우고, 도시의 소비자들이 절제의 식생활을 통해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워크숍의 발제자료와 지침 등은 토론내용 등과 함께 정리한 후 내용을 보완하여 <구제역피해 축산농민 돌봄을 위한 상담 지침서>로 편집되어 전국 구제역 피해지역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3월 중에 무료로 보급될 예정이다.

(사)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 한국교회희망봉사단은

선교 초기부터 이 땅에 병원과 학교 그리고 고아원과 양로원 등을 설립해 백성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보듬어온 한국교회의 섬김과 나눔의 정신을 계승한 디아코니아(Diakonia) 연합기관입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한국기독교 사회복지 구현을 위해 2002년 창립된 (사)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를 모태로 하여 2007년 12월 서해안 앞바다의 원유유출 사고로 파괴된 환경을 복원하고 삶의 터전을 잃은 어민들을 위로하는 130만 방제 자원봉사의 섬김이로 태동되었습니다.

서해안 원유유출사고 자원봉사 활동 이후 2008년 미안마 사이클론, 중국 스촨성 지진, 2009년 필리핀 수해, 인도네시아 지진, 2010년 아이

티 지진 등의 재난 구호와, 용산참사 피해자,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희귀난치성 질병환자 등의 지원 및 중재, 그리고 2005년과 2010년 기독교사회복지엑스포 등의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교회 혹은 교단이 개별적으로 수행해 오던 섬김의 사역을 한국교회 이름으로 하나로 엮어 “섬기면서 하나 되고 하나 되어 섬기자”는 기치아래 진행하며 한국교회가 한국사회의 희망으로 우뚝 설 수 있음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제 사회복지·재해구호·자원봉사·화해사역을 통해 <소통하는 한국교회>, <성숙한 한국교회>를 구축 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주요사역 소개

• 후원 계좌 : 신한은행 100-022-688472 (사)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 한국교회희망봉사단

2007년

※ 서해안 원유유출사고 방제

- 서해안 원유유출 사고 발생 후 약 4개월간(2007. 12. 17-2008. 3. 31) 방제작업 총괄 지원
- 자원봉사자 직접동원 17만명(200억원 소요)
- 기독교인 자원봉사자 80만명을 비롯한 전체 130만 자원봉사자 지원
- 법차운영, 방제작 공급 및 배분, 서해안 주민 위로 및 치료사업
- 생태환경국제회의 유치(2008. 5. 14-17, 충남 대천 레그랜드편지호텔)
- 지역아동지원사업 실시
- 생태백서 발간(2008. 12. 04, 풍류출판사 크라운판 450면)

2008년

※ 미안마 사이클론 피해(2008. 05. 03) 구호

- 이재민 긴급구호(3천만 원 지원, 급식제공)
- 6월 9일부터 급식봉사 운영
- 이재민 주택공급사업(3천만원 지원)
- 아동급식 및 교육사업(850만원 지원)
- 미안마 구호 담당 4개 NGO(월드비전, 국제기아대책기구, 굿피플, 팀애틀에) 각각 2천5백만원 지원 - 아동급식 및 교육사업 추진
- NCKK 미안마 여성과 아동 지원사업 1천만원 지원

※ 중국 쓰촨성 지진피해(2008. 05. 12) 구호

- 쓰촨성 어린이 장애학교 설립위해 중국 종교성 업무 담당자에게 4억5천만원 전달
- ※ 식량난으로 고통 받는 북한주민 구호
- 밀가루 100톤 지원(2008. 07. 30) / 남북나눔운동본부
- 비료 100톤 지원(2008. 08. 07) / 월드비전
- 밀가루 200톤 지원(2008. 09. 05) / 남북나눔운동본부
- 밀가루 200톤 지원(2008. 09. 29) / 남북나눔운동본부

※ 논현동 고시원 참사(2008. 10. 20) 유가족 위로 및 장례 주관

2009년

※ 전국 기독교 지역아동센터 실태조사 및 지원

- 실태조사(2009. 06. 01-06. 09) 연구자 : 이태수 교수(꽃동네사회복지대) 이경림 대표(부스리기사랑나눔회) 이향란 소장(한국아동정책연구소)
- 실태조사 발표(2009. 07. 20, 연동교회)
- 각 지역아동센터에 총 3천만원 지원

※ 필리핀 태풍 수해 구호

- 1차 긴급구호 : 마닐라 외곽 타이타이 마을과 리잘 지역에 긴급구호품(쌀, 녹두, 마른생선, 소금, 설탕, 비스킷 등) 1천가구 분배 / 1천 5백만원 상당(2009. 09. 30-10. 03)
- 2차 의료봉사 : 라구나호수 근처 가옥침수 지역에 전주예수병원과 대구삼덕교회 긴급구호단 소속 의사 6명, 간호사 4명, 약사 1명, 어린이사역자 1명 등이 수인성 전염병과 피부질환 대상자 750여명에게 진료 및 약품 제공

※ 인도네시아 지진 구호(2009. 10. 07-10)

-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주 빠당시 지역 이재민들에게 긴급구호품(쌀, 라면, 설탕 등 식료품과 일용품) 1,100가구 분배
- ACT에 1천여 만원 구호금 전달

2010년

※ 용산참사 유가족 위로

- 유가족 위로금 전달 : 유족 5가족에게 총1억원(각 2천만원) 위로금 전달
- 희생자 묘지 및 비석대금 지원 : 유족 5가족에 총 7천5백만원(각 1천5백만원) 지원

- 유가족 심리치료여행(2010. 04. 19-22, 제주도 풍림콘도)
- 피해가족 자녀 학비지원 : 대학생 2명, 고등학생 1명 대학졸업시까지 장학금 제공
- ※ 노숙인을 위한 2010 설날희망큰잔치(2010. 02. 12-16일, 서울역 우체국 앞 지하도)
- 디지털수화성경 제작 지원 사업 / 제작 감사예배 및 시사회
- 제작내용 : 창세기, 마태복음, 마가복음 / CD제작
- ※ 아이티 지진참사 이재민 지원
- 아이티지진구호 협력사업 모색을 위한 한국교회 원탁회의 주관
- 아이티 현장 실무자(이인수 목사) 파견 및 상주(현재까지)
- 긴급구호
- (1) 1차 지원(01. 22) : 포도프랑스내 '까버레' 지역 / \$ 34,481
- (2) 2차 지원(01. 25) : 하미니시 부엔 사마리만 병원 / \$ 21,000
- 교회건축사업 : 70개의 피해교회 예배당 건축 개시
- (1) 1차 교회 재건비 지원 지원(05. 12) / 7천만원
- 포르트프랑스, 레오간 지역 교회 재건 진행
- (2) 2차 교회 재건비 지원(10. 11) / 2억1천만원
- 씨티솔레 지역 30개 교회 재건 진행 중
- (3) 3차 교회 재건비 지원(11. 30) / 2억1천만원
- 아이티 씨티솔레 지역 콜레라 긴급구호 자금 지원(11. 23) / \$ 30,000
- 한국PKO 레오간 르농느강 제방 보강용 마대 지원(12. 01) / 6,000,000원
- 은혜고아원(대표 사명 목사, 김현철 선교사) 지원(12. 01) / \$ 20,000
- 아이티 정부로부터 토지사용권을 승인받은 크리스천빌리지(20만명) 팬스공사 지원(12. 10) / \$ 91,024
- 사랑의집 고아원(대표 백삼숙 목사) 설립 지원(12. 25) / 50,000,000원
- 세계교회협의회(WCC) 및 도미니카교회협의회와 공동으로 간시에르지역 콜레라클리닉센터 오픈 지원(12. 31) 200,000,000원
- ※ 한국교회8.15대성회 복지영역대회 주관
- 복지학술포럼(2010. 08. 11, 거룩한빛광성교회) : 한국 기독교 사회복지 125년의 회고와 미래
- 8.15자원봉사단 창립 및 발대식
- (1) 8.15 대성회 자원봉사단을 위한 설명회
- (2) 한국교회8.15대성회 자원봉사단을 위한 자원봉사학교
- (3) 한국교회8.15대성회 자원봉사단 선서식
- ※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지원(2010. 08. 11)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쉼터 '우리집' 위로방문 및 TV, 식료품 등 선물 전달
- 일본대사관 앞 항의집회에 한국교회 주요지도자 참석
- 일본정부의 위안부문제 공식인정 및 사과 촉구 서명운동 전개
- 2011년부터 위안부 피해자 쉼터에 월 200만원 운영비 지원
- ※ 기독교사회복지엑스포2010 개최(2010. 10. 13-16, 여의도순복음교회·여의도한강시민공원)
- 주제 : 섬기는 기쁨 나눔의 행복
- 내용 : 전 시 - 3개 기획전시 및 13개 영역 92개 기관·단체 참여(102개 부스) 세미나 - 국제학술대회 및 11개 영역별 세미나 / 대 회 - 5개 대회 / 개막예배, 전시관개관식, 폐막식 및 행복한음악회
- 참여 : 연인원 10만 명
- ※ 루게릭환자 치료비 지원(2010. 12. 02)
- 강남세브란스병원에 신경근육계 희귀난치성 질환자 치료비 73,600,000원 전달
- ※ 이웃과 함께하는 거리의 성탄잔치(2010. 12. 24, 전국 17개 장소)
- 서울(5) : 서울역, 영등포 햇살보금자리, 구로에덴교회, 노원들무새공동체, 성수 삼일내일외집, 경기(4) : 수원역, 안양역, 의정부상담센터, 부천실로암교육문화센터, 충청(2) : 천안역, 대전역, 경상(2) : 대구역, 부산역, 전라(1) : 전주희망의 집, 강원(3) : 원주방상공동체, 태백황지희망의살림터, 강릉희망의집, 규모 : 1만여 명(노숙인 9천명, 봉사자 1천명)
- 내용 : 예배 및 행사 후 무료 급식 제공, 노숙인에게 2만원 상당 성탄선물 증정

◎ 후원내역

※ 2010년 12월 사업비 후원

강남중앙(피명민) 5,000,000 강북제일(황형택) 20,000,000
 군포제일(권태진) 1,000,000 덕수(손인용) 1,000,000
 명성(김삼환) 30,000,000 문화체육관광부 20,000,000
 삼일(송중환) 2,000,000 새에덴(소강석) 10,000,000
 수원중앙(고정진) 12,000,000 수인중앙(배정섭) 300,000
 영안(양병희) 1,000,000 은평성결(한태수) 10,000,000
 통합 사회봉사부(김점동) 30,000,000
 정동제일(송가성) 1,000,000 종교(최이우) 5,000,000
 청주우암(박윤석) 500,000 향성(정주재) 1,000,000

※1월 사업비 후원

거룩한빛광성(정성진)4,000,000 덕수(손인용) 1,000,000
 명성(김삼환) 11,800,000 사랑의오정현 20,000,000
 사회복지공동모금회 48,600,000 새에덴(소강석) 8,000,000
 여의도순복음(이영훈) 50,000,000 영락(이철신) 20,000,000
 영안(양병희) 3,000,000 은평성결(한태수) 3,000,000
 종교(최이우) 3,000,000 향성(정주재) 1,000,000

※2월 사업비 후원

상도성결(박근배) 1,000,000 승리(진희근) 500,000
 유태수 20,000 정동제일(송가성) 500,000
 향성(정주재) 2,450,000

※12월, 1월 경상비 후원

명성(김삼환) 7,950,000 / 명성(김삼환) 15,900,000

※12월 회비

강인석 목사	100,000	고명성 목사	5,000
권태경 목사	20,000	김민성	40,000
김경원 목사	300,000	김동배 교수	100,000
김득연 회장	100,000	김병삼 목사	200,000
김선도 목사	500,000	김양원 목사	200,000
김원광 목사	100,000	김원호 목사	10,000
김정규 장로	30,000	김종생 목사	10,000
김중용 목사	100,000	대한예수교장로회	100,000
류영모 목사	100,000	류중훈 교수	30,000
문강원 목사	100,000	박은조 목사	200,000
박종언 목사	100,000	박홍자 장로	30,000
방수성 목사	100,000	서재일 목사	1,000,000
서정오 목사	300,000	송달익 목사	100,000
손인용 목사	600,000	송기성 목사	500,000
안용운 목사	100,000	양해규 목사	5,000
어덕선 집사	10,000	오정호 목사	500,000
오진석 목사	60,000	유인석 목사	5,000
유재필 목사	100,000	이경희 전도사	5,000
이만식 교수	30,000	이봉관 회장	200,000
이순 목사	100,000	이은화 권사	100,000
이재원 관장	100,000	이창연 장로	3,600,000
이철신 목사	1,000,000	이태훈 소장	10,000
장경덕 목사	100,000	장덕만 목사	100,000
장현승 목사	30,000	전윤원 목사	30,000
전현표 목사	10,000	정명철 목사	100,000
정영호 목사	100,000	정성진 목사	200,000
정승룡 목사	300,000	정연철 목사	100,000
정필도 목사	100,000	조남선 시실장	30,000
조상돈 목사	50,000	조재호 목사	100,000
조종남 목사	300,000	조홍식 교수	30,000
조남순 목사	600,000	최이우 목사	1,000,000
진희근 목사	500,000	홍문수 목사	300,000
한태수 목사	1,000,000		
황형택 목사	500,000		

※1월 회비

오정호 목사	500,000	오진석 목사	30,000
유인석 목사	5,000	유재필 목사	100,000
이경희 전도사	10,000	이만식 교수	30,000
이순 목사	100,000	이은화 권사	100,000
이재원 관장	100,000	이태훈 소장	5,000
장경덕 목사	100,000	장덕만 목사	100,000
장현승 목사	30,000	전윤원 목사	30,000
전현표 목사	10,000	정명철 목사	100,000
정영호 목사	100,000	정성진 목사	200,000
정승룡 목사	300,000	정연철 목사	100,000
정재우 목사	100,000	정필도 목사	100,000
조규환 원장	300,000	조남선 시실장	30,000
조상돈 목사	50,000	조재호 목사	100,000
조종남 목사	300,000	조홍식 교수	30,000
진희근 목사	500,000	최이우 목사	1,000,000
한태수 목사	1,000,000	홍문수 목사	300,000
황형택 목사	300,000		

※2월 회비

고명성 목사	5,000	권태경 목사	10,000
김경원 목사	300,000	김동배 교수	100,000
김득연 회장	100,000	김병삼 목사	100,000
김봉준 목사	500,000	김양원 목사	200,000
김원광 목사	100,000	김원호 목사	10,000
김정규 장로	30,000	김종생 목사	10,000
김준수 권사	10,000	김중환 목사	100,000
류영모 목사	100,000	류중훈 교수	30,000
문강원 목사	200,000	박윤석 목사	500,000
박은조 목사	200,000	박홍자 목사	100,000
박홍자 장로	30,000	방수성 목사	100,000
서도형 목사	100,000	서재일 목사	1,000,000
서정오 목사	300,000	서철 목사	200,000
손인용 목사	300,000	송기성 목사	500,000
신화석 목사	200,000	안용운 목사	100,000
양해규 목사	5,000	어덕선 목사	50,000
오정호 목사	500,000	오진석 목사	30,000
유인석 목사	5,000	유재필 목사	200,000
윤성원 목사	300,000	이경희 전도사	5,000
이만식 교수	30,000	이순 목사	100,000
이은화 권사	100,000	이재원 관장	100,000
이철신 목사	2,000,000	이태훈 소장	5,000
장경덕 목사	100,000	장덕만 목사	100,000
장현승 목사	30,000	전윤원 목사	30,000
전현표 목사	10,000	정명철 목사	100,000
정영호 목사	100,000	정성진 목사	500,000
정승룡 목사	300,000	정연철 목사	100,000
정재우 목사	100,000	정필도 목사	100,000
조규환 원장	300,000	조남선 시실장	30,000
조상돈 목사	50,000	조재호 목사	100,000
조종남 목사	300,000	조홍식 교수	30,000
진희근 목사	500,000	최이우 목사	1,000,000
추연호 목사	150,000	한태수 목사	1,000,000
홍문수 목사	300,000	황형택 목사	300,000